

맑스學說의 梗概(一)

上海에서 新島

一. 剩餘價値

맑스는 現代에 著名한 一個 大 經濟學家라 『아담스미스』가 個人主義의 經濟學을 代表한 것과 갓치 『맑스』는 社會主義의 經濟學을 代表한 것은 『맑스』學說에 對하여 贊成共鳴하는 者나 反對攻擊하는 者를 勿論하고 一致承認하는 바라.

『맑스』의 經濟學說이 個人主義의 經濟學說과 不同한 特色은 剩餘價値의 成立의 實現됨의 如何함을 說明함에 在하나니 二千數百項이나되는 資本論 속에 反復詳細히 立論說明한 것이라더 『아담스미스』는 『土地가 私有되기 前에 資本이 偏集되지 안엇을 最初의 狀態는 勞動者의 生産한 物件은 勞動者 自身の 所有엇섯다』 말하얏고, 또 말하기를 『勞動者 自己가 生産品의 全部를 享有하든 最初狀態는 土地가 私有되고 資本이 偏集된 後에 그만 斷絶되얏다』 하얏도다. 此兩般의 設을 보건된 土地와 資本이 私有에 歸한 結果勞動者는 힘들여서 일한 生産品의 全部를 엇지 못하고 僅夕히 床下에 셔러진 밥알 갓흔 一 少部分을 得할 싸름이니 其剩餘의 大部分은 個人에게 歸하는가? 『맑스』의 學說 上 所謂 『剩餘價値』란 것은 卽此을 謂함이니 剩餘價値는 資本家의 金庫 中으로 入하게 되고 資本家は 可□可矜한 勞動者의 剩餘價値를 搾取하야 彼 等의 私有資本을 삼고 再生産에 再搾取하야 勞動者가 生産할수록 資本家の 착취는 尤增하니 貧者는 益貧하야 父母는□□에 轉하고 妻子는 道路에 泣하되 富者는 加富하야 身에는 五色錦繡의 衣服도 오히려 □하고 □에는 八珍도 도리혀 飫하는도다. 그리하야 資本의 偏集됨이 이 貌樣으로되니 資本□度도 自然漸次 더욱 發展進步된다.